

집회서 48:17-22의 히스기야 터널에 관한 고찰 — 히브리어 본문과 칠십인역의 본문 비교 —

임봉대*

1. 들어가는 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는 기원전 701년 예루살렘을 위협한 앗수르 왕 산헤립의 유다 침공이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예루살렘 공격에 대비하여 성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것을 큰 업적으로 묘사하고 있다(왕하 20:20; 대하 32:30). 1837년 에드워드 로빈슨(Edward Robinson)이 기혼 샘에서 실로암 연못에 이르는 터널을 탐사하고, 1880년 실로암 비문이 발견됨으로써 이 터널이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공격에 대비하여 만든 수로라고 인정되어 왔다.¹⁾ 한편 로저슨(J. Rogerson)과 데이비스(P. H. Davies)는 이 터널이 히스기야가 만든 것이 아니라 훨씬 후대인 하스모니아(Hasmonean) 왕조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터널의 시기와 용도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²⁾

기원전 8세기경 히스기야가 만들었다는 수로에 대한 기록은 외경인 집회서에도 나온다. 집회서는 기원전 200-175년경 벤 시라(Ben Sira)가 원래 히브리어로 쓴 책으로, 현재 그리스어 역본인 칠십인역(LXX)과 히브리어로 쓰인 사본이 함께 존재한다. 집회서 48:17-22는 히스기야의 업적을 칭송하면

* Graduate Theological Union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국제성서박물관 관장, 감리교신학대학교 객원교수. biblemuseum@naver.com.

1) Avraham Faust, "A Note on Hezekiah's Tunnel and the Siloam Inscription", *JSOT* 90 (2000), 3.

2) John Rogerson and Philip R. Davies, "Was the Siloam Tunnel Built by Hezekiah?", *Biblical Archaeologist* 59:3 (1996), 138-149.

서 앓수르의 침공에 대비하여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 본문은 하스모니아 왕조 직전에 기록된 것이어서 특별히 시선을 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고 집회서 48:17-22의 히브리어 본문과 칠십인역의 본문을 비교, 분석하면서, 『공동』(1977년)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경』(2005년)³⁾, 그리고 미국 가톨릭교회 성경인 NAB(1970년)의 개정판인 NABRE(2011년)에 나타난 번역상의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공동』은 1977년 대한성서공회에서 신·구교 공동 사업으로 출판한 성경이다. 『공동』은 현대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이해하기 쉽지만 개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일부에서만 받아들여 사용하였다. 1999년에 『공동개정』이 나왔는데, 1988년부터 달라진 한글맞춤법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과 그동안 발견된 번역 및 편집상의 오류, 가톨릭으로부터의 요청 등에 따라 소폭 개정한 것이다.⁴⁾ 그러나 본 논문에 인용한 집회서 본문의 경우 『공동개정』과 『공동』이 일치하므로 『공동』을 그대로 사용한다.

NAB는 1962년에 시작된 제2 바티칸 공의회 이후 미국 가톨릭교회가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역(Vulgate)이 아닌 히브리어, 아람어와 그리스어에서 직접 번역한 성경이다. 특히 라틴어 학자들뿐만 아니라 비(非) 가톨릭 학자인 프랭크 크로스(Frank M. Cross, Jr.), 데이빗 노엘 프리드만(David Noel Freedman), 존 낙스(John Knox)와 제임스 샌더스(James A. Sanders) 등이 참여를 했고, 사해 사본을 포함한 여러 사본을 참고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⁵⁾ 집회서의 경우 개정판인 NABRE가 NAB보다 히브리어 본문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

2. 성경에 언급된 히스기야 터널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 샘과 연결된 급수 시설이 세

3) 가톨릭교회에서는 한동안 『공동』을 사용하였지만, 1988년 『공동』을 대신할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05년에 완역, 출판된 『성경』을 가톨릭 공인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다.

4) 전무용,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무엇이 어떻게 개정되었는가”, 『성경원문연구』 13 (2003), 139-156.

5) *The New American Bible, Translated from the Original Languages with Critical Use of All the Ancient Sources by Members of the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With Textual Notes on Old Testament Readings* (Paterson: St. Anthony Guild, 1970), 124-125.

가지 있었다.⁶⁾ 첫째는 1867년에 발견된 워렌의 수직 갱도(Warren's shaft)이다. 예루살렘 성벽 안쪽에서 수직으로 우물을 파서 기혼 샘에서 흘러온 물을 퍼 올리는 것이다. 둘째는 기혼 샘에서 나온 물이 동쪽 계곡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 아래 못으로 가는 시내가 하나 있다. 이 시내는 일부 바위를 뚫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 자연스럽게 지상으로 흐른다. 이 시내는 이사야 8:6에 언급된 것으로 히스기야가 지하 수로를 파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히스기야 터널이다.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침공에 대비하여 기혼 샘의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이는 지하 수로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열왕기하 20:20과 역대하 32:30에서 찾아볼 수 있다.

2.1. 열왕기하 20:20

열왕기하 20:20은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업적에 대해 결론적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특별히 히스기야가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언급하고 있다.

MT וַאֲשֶׁר עָשָׂה אֶת־הַבְּרֵכָה וְאֶת־הַתְּעָלָה וַיָּבֵא אֶת־הַמַּיִם הָעִירָה

LXX καὶ ὅσα ἐποίησεν τὴν κρήνην καὶ τὸν ὑδραγωγὸν καὶ εἰσήνεγκεν τὸ ὕδωρ εἰς τὴν πόλιν

『개역개정』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
 『공동』 저수지를 파고 물길을 터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일
 『성경』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일

NABRE how he constructed the pool and conduit and brought water into the city

히브리어 성경(MT)의 וַאֲשֶׁר עָשָׂה אֶת־הַבְּרֵכָה וְאֶת־הַתְּעָלָה에서 『개역개정』이 “수도”라고 번역한 הַתְּעָלָה는 『공동』의 “물길”이나 『성경』의 “수로”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어원은 עלה로 ‘올라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로저슨과 데이비스는 הַתְּעָלָה의 어원적 의미를 볼 때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가 기혼 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수평으로 흐르는 터널이 아니라, 기혼 샘에서 나온 물을

6) Stig Norin, “The Age of the Siloam Inscription and Hezekiah’s Tunnel”, *Vetus Testamentum* 48:1 (1998), 38-39.

수직으로 퍼 올린 위렌의 수직 갱도라고 주장한다.⁷⁾ 그러나 הַתְּעָלָה는 갈멜 산 정상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돌아가며 만든 ‘물길(도랑)’(왕상 18:32, 35, 38)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물의 방향이 수평이나 수직이냐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길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다.⁸⁾

중요한 것은 그다음 문장인 הָעִירָה אֶת־הַמַּיִם הָעִירָה에 나오는 הָעִירָה(성으로)라는 표현이다. 히브리어는 ‘-를 향하여’ 혹은 ‘-으로’라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접미어 ‘-א(ת, ת)’가 결합되어 있는데, 칠십인역에서는 εἰς τὴν πόλιν(성안으로)이라고 하여 ‘안으로’라는 전치사 εἰς를 사용함으로써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가 성 밖에서 성안으로 연결된 것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2.2. 역대하 32:30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후기인 페르시아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신명기 사가의 열왕기와 달리 히스기야가 행한 치적에 대해 훨씬 많은 내용들을 알려 주고 있다.⁹⁾ 이것은 히스기야를 다윗과 솔로몬에 비견하려는 저자의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⁰⁾ 역대기 사가는 역대하 32:2-8에 히스기야가 앗수르왕 산헤립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성 밖의 모든 물 근원과 시내를 막았다고 기록하고, 30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MT והוא יְחַזְקֶיהוּ סָתַם אֶת־מוֹצָא מַיִם נִיחֹן הָעֵלְיוֹן וַיִּשְׂרַם
לְמַטְשָׁה־מַעְרָבָה לְעִיר דְּוִיד וַיַּעֲלֶה יְחַזְקֶיהוּ בְּכָל־מַעְשָׂהוּ

LXX αὐτὸς Ἐζεκιᾶς ἐνέφραξεν τὴν ἕξοδον τοῦ ὕδατος Γῆων τὸ ἄνω καὶ κατηύθυνεν αὐτὰ κάτω πρὸς λίβα τῆς πόλεως Δαυὶδ καὶ εὐοδώθη Ἐζεκιᾶς ἐν πᾶσι τοῖς ἔργοις αὐτοῦ

『개역개정』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이었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공동』 기혼 샘 윗쪽 물줄기를 막고 땅을 뚫어 그 물을 감쪽같이 다윗 성 서쪽으로 해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바로 히

7) John Rogerson and Philip R. Davies, “Was the Siloam Tunnel Built by Hezekiah?”, 143.
 8) Stig Norin, “The Age of the Siloam Inscription and Hezekiah’s Tunnel”, 43.
 9) T. R. 흠스, 『열왕기하』, 김병하 역, WBC 13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3), 564.
 10) 레이몬드 B. 딜라드, 『역대하』, 정일오 역, WBC 15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0), 410.

- 『성경』 즈키야였다. 히즈키야는 무슨 일을 하여도 뜻대로 되었다. 기혼 샘의 위쪽 물줄기를 막아 다윗성 서쪽 밑으로 돌려 끌어들이는 것도 바로 히즈키야이다. 히즈키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였다.
- NABRE This same Hezekiah stopped the upper outlet for water from Gihon and redirected it underground westward to the City of David. Hezekiah prospered in all his works.

역대하 32:30은 לְמַטְהַר מֵעַרְבָּהּ לְעִיר דָּוִד(땅 아래를 통해 다윗성의 서쪽 편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히스기야가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대해 열왕기하 20:20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표현은 예루살렘성 동쪽 밖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 샘에서 다윗성의 서쪽 편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지하 수로를 만든 것을 말한다. 30중반절에 וַיִּשְׁרַם이라는 단어를 『개역개정』은 “곧게 끌어들이었으니”라고 번역하고, 『성경』은 “돌려 끌어들이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히브리어 שָׂרַם은 ‘곧은’(right) 혹은 ‘부드러운’(smooth)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기혼 샘에서 실로암 연못에 이르기까지의 경사가 아주 완만하여 물이 순조롭게 잘 흐르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30하반절에 וַיִּשְׁלַח וַיְחַזְקֵהוּ בְּכָל-מַעְשָׂהוּ(그리고 히스기야는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은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든 것이 하나님 은총의 결과라는 역대기 사가의 신학적 의도를 보여 준다. 동사 וַיִּשְׁלַח의 원형인 שָׁלַח는 ‘번성하다’, ‘형통하다’는 뜻으로 역대기사의 보응의 신학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된다.¹¹⁾

3. 집회서 48:17-22의 본문 분석

칠십인역에 있는 집회서(Ecclesiasticus)의 본래 이름은 ‘시라크의 지혜’(소피아 시라크, Σοφία Σειραχ)이다. 집회서는 초대 기독교 교부들이 교회에서 사용하기 좋은 집회 문헌이라는 뜻에서 붙인 명칭이다. 1896년과 1900년 사이에 이집트 카이로 회당 창고(genizah)에서 발견된 많은 문헌 중 히브리어로 된 집회서 단편들이 학자들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1986년 세흐터(S. Schechter)는 루이스(Mrs. Lewis)와 김슨(Mrs. Gibson)이 동방에서 가져온 고대 사본 조각들이 히브리 원어로 쓰인 집회서(The Wisdom of Ben

11) Ibid.

Sira)의 일부분인 것을 알았다.¹²⁾

집회서는 구약의 전통적인 지혜전승을 반영하고 있지만, 특별히 집회서 44-50장의 경우 지혜전승과 이스라엘의 역사전승을 결합하고 있다.¹³⁾ 집회서 44-50장은 일종의 영웅 찬양시로 창세기의 태고사(창 1-11장)에 등장하는 에녹과 노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와 아론부터 사사들과 왕들을 포함한 구약성서의 여러 인물들과 집회서 저자 당시의 대제사장인 시몬(Simon II, 기원전 219-196년) 등을 찬양하고 있다.¹⁴⁾ 그중에 집회서 48:17-22는 성벽을 공고히 하고 물을 안전하게 확보함으로 앗수르의 침공을 물리친 히스기야의 업적을 칭송한 내용이다.

집회서 사본들은 A, B, C, D 등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중에 48장은 MS(Manuscript, 사본) B에 속한다. MS B는 12세기에 행 나누기로 쓴 것으로 모두 19장으로 되어 있다.¹⁵⁾ MS B는 루이스-갑슨 단편과 보들레이안(Bodleian) 단편과 함께 있었던 고문서(codex)에서 나온 것이다.¹⁶⁾ 본 논문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본문은 판크레티우스 빈체스(Pancratius C. Beentjes)가 쓴 *The Book of Ben Sira in Hebrew: A Text Edition of All Extant Hebrew Manuscripts and A Synopsis of All Parallel Hebrew Ben Sira Texts*¹⁷⁾에 있는 것이다.

3.1. 17절

יחזקיהו חזק עירו	a Εζεκιας ὠχύρωσεν τὴν πόλιν αὐτοῦ
מהשות אל תוכה מים	b καὶ εἰσήγαγεν εἰς μέσον αὐτῆς ὕδωρ
ויחצב כנחשת צורים	c ὠρυξεν σιδήρῳ ἀκρότομον
ויחסום הרים מקוה	d καὶ ὠκοδόμησεν κρήνας εἰς ὕδατα

12) Patrick W. Skehan and Alexander A. 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AB 39 (New York: Doubleday, 1987), 51.

13) 천사무엘, “집회서의 이스라엘 영웅 찬양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0 (2005. 7.), 30.

14) Ibid., 31.

15) Patrick W. Skehan and Alexander A. 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52.

16) S. Schechter and C. Taylor, *The Wisdom of Ben Sira: Portions of the Book Ecclesiasticus from Hebrew Manuscripts in the Cairo Genizah Collection Presented to the University of Cambridge by the Edito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9), 10.

17) Pancratius C. Beentjes, *The Book of Ben Sira in Hebrew: A Text Edition of All Extant Hebrew Manuscripts and A Synopsis of All Parallel Hebrew Ben Sira Texts*, VTS 68 (Leiden: Brill, 1997).

『공동』

- a 히스기야는 그의 도성을 견고히 하고
- b 성 안에 물을 끌어들었다.
- c 그리고 쇠로 바위에 굴을 파서
- d 저수지를 만들었다.

『성경』

- a 히스기야는 그의 도성을 견고하게 하고
- b 그 한복판으로 물을 끌어들었다.
- c 그는 쇠 연장으로 바위를 뚫고
- d 저수 동굴을 만들었다.

NABRE

- a Hezekiah fortified his city
- b and had water brought into it;
- c With bronze tools he cut through the rocks
- d and dammed up a mountain site for water.

17a절 **עִירוֹ חֹזַק יְחֻזְקֶיהָ**(히스기야는 그의 도성을 견고히 하고)는 이사야 22:9에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라는 기록과 내용상 일치한다. 17c절 **וַיַּחְצֹב בְּנֹחַשְׁתַּיִם צִוְרִים**(그리고 그가 낫으로 바위를 뚫어서)라는 표현에서 **בְּנֹחַשְׁתַּיִם**는 전치사가 **ב**(-같이)인데, 원래는 전치사 **ב**(-안에, -로)이다. 『공동』과 『성경』은 칠십인역의 **σιδήρω**(쇠, 남성 단수 여격)을 따라 “쇠로”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히브리어 본문의 **נֹחַשְׁתַּיִם**는 ‘낫’(bronze, 청동)이다. ‘쇠’는 히브리어로 **בְּרֹזֶל**이다.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많은 우상을 제거하고 ‘느후스단’(נְחֻשְׁטָן)도 부수었다(왕하 18:4). ‘느후스단’은 (뱀)신의 형상을 낫(청동)으로 만들었다는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낫뱀(민 21:6-9)을 향하여 계속해서 분향하였는데,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면서 느후스단도 함께 부순 것이다.¹⁸⁾ NAB도 칠십인역을 따라 “with iron”(쇠로)이라고 번역하였지만, 개정판인 NABRE는 히브리어 본문을 따라 “with bronze”(낫으로)로 번역하였다. 17c절에 나오는 동사 **חָצַב**(뚫다)와 명사 **צוּר**(바위)는 실로암 비문에도 두 번씩 나온다.¹⁹⁾

18) 이상원, “히스기야의 산당 제거(왕하 18:4)와 예로보암의 죄(왕상 12:26-32) — 히브리 성서(MT)와 우리말 번역 성서의 비교 —”, 『성경원문연구』 39 (2016), 48.

19) 동사 **חָצַב**와 명사 **צוּר**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4. 실로암 비문에서 다룬다.

17d절 מְקוֹה הַרִים מִיַּחְסוֹם에서 יַחְסוֹם의 원형은 חָסַם으로 ‘막다’, ‘멈추다’, ‘땅을 씌우다’는 뜻이다. 그리스어 동사 ὑποδομήσεν은 ‘짓다’, ‘건설하다’는 뜻이다. 히브리어 본문인 מְקוֹה הַרִים מִיַּחְסוֹם를 직역하면 “저수지를 (위하여) 산(혹은 언덕)들을 막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이사야 22:11 “너희가 …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מִמְקוֹה עֲשִׂיתֶם בֵּין הַחֲמוֹתַיִם)는 표현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실로암 연못이 서쪽 성벽과 맞은편 언덕 사이에 있다는 사실과 부합된다.²⁰⁾

3.2. 18절

בִּימֵיו עָלָה סַנְחַרִּיב	a ἐν ἡμέραις αὐτοῦ ἀνέβη Σενναχηριμ
וַיִּשְׁלַח אֶת רֹב שָׂקָה	b καὶ ἀπέστειλεν Ραψακημ
וַיִּשׂ יָדוֹ עַל שִׁיּוֹן	c καὶ ἀπήρεν καὶ ἐπήρεν χεῖρα αὐτοῦ ἐπὶ Σιων
וַיְגַדֵּף אֱלֹהֵי בְּנֵי אָדָם	d καὶ ἐμεγαλύχησεν ἐν ὑπερηφανίᾳ αὐτοῦ

『공동』

- a 그의 시대에 산헤립이 왕이 되어
- b 랍사케를 사신으로 보냈다.
- c 그가 시온 산을 향하여 손을 들고
- d 거만하게 호언장담하였다.

『성경』

- a 그의 시대에 산헤립이 쳐들어왔는데
- b 그는 랍사케를 파견하고 떠났다.
- c 그는 시온을 거슬러 손을 들고
- d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호언장담하였다.

NABRE

- a During his reign Sennacherib led an invasion
- b and sent his adjutant;
- c He shook his fist at Zion
- d and blasphemed God in his pride.

『공동』에 18a절 “왕이 되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עָלָה인데, ‘올라오다’라는 뜻으로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의 시대에 산헤립이 공격하러 와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 적합하

20) Stig Norin, “The Age of the Siloam Inscription and Hezekiah’s Tunnel”, 44.

다. 앓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에 관한 보도는 열왕기하 18:13-17과 역대하 32:1-20, 그리고 이사야 36:1-22에 상세하게 나온다.

칠십인역은 18c절에서 ἀπήρεν과 ἐπήρεν, 두 동사를 사용하여 “그가 그의 손을 내밀어 시온을 향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히브리 본문은 שׁוּׁ라 는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원인 שׁוּׁ는 ‘뺏다’, ‘퍼다’는 뜻으로 칠십인역의 두 단어와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

18d절 בּוֹאֲנוּ אֵל יְיָ(그가 오만하게 하나님을 모욕하였다)에서 주어가 가리키는 것은 18b절의 랍사게이다.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사신에게 한 오만방자한 말은 열왕기하 18:22, 32-35와 이사야 36:7-10, 14-20에 기록되어 있다. 집회서는 성경에 기록된 랍사게의 말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칠십인역에서는 하나님 명칭인 אֱלֹהִים을 사용하지 않고, “그가 오만한 말로 거만하게 말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NABRE는 히브리어 본문을 따라 “그가 오만하게 하나님을 모독하였다”(and blasphemed God in his pride)라고 번역하고 있다.

18d절의 동사 יָגַד는 열왕기하 19:22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에서 ‘비방하다’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 יָגַדְתָּ와 같은 동사이다. 어원인 יָגַד는 강의형(piel)으로 나오며, ‘욕설을 하다’(revile), ‘신성 모독을 하다’(blasphemy)는 뜻이다. 18d절의 마지막 단어인 בּוֹאֲנוּ에서 명사 בּוֹאֵן은 ‘우쭐함’, ‘탁월함’, ‘장엄함’ 등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오만함’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3.3. 19절

מוֹנוּ בְּנַפְשׁוֹן לָבָם () וַיִּחִילוּ כִּיּוֹלָדָה	a τότε ἐσαλεύθησαν καρδίαι καὶ χεῖρες αὐτῶν b καὶ ὠδίνησαν ὡς αἱ τίκτουςαι
---	---

『공동』

- a 히즈키야의 백성들은 마음과 손이 떨리고
- b 산모의 진통 같은 고통을 당하였다.

『성경』

- a 그러자 그들은 마음과 손이 떨리고
- b 몸 푸는 여자들처럼 고통을 겪게 되었다.

NABRE

- a The people’s hearts melted within them,
- b and they were in anguish like that of childbirth.

- c He heard the prayer they uttered,
- d and saved them through Isaiah.

히브리어 본문 20a절은 첫 단어에서 복수형 동사를 의미하는 וַיִּשְׁמַע(1만 있고 앞 글자가 빠져 있다. 칠십인역에 나오는 ἐπεκαλέσαντο라는 동사에 따라 히브리어 קרא 동사가 빠진 것으로 보고, ‘그들이 구하였다’고 이해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 ἐπεκαλέσαντο는 동사 ἐπεκαλέσαντο(부르다)의 3인칭 과거(aorist) 복수형이다. 20a절에서 히브리어 본문은 하나님을 אֱלֹהֵינוּ(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칠십인역은 τὸν κύριον τὸν ἐλεήμονα(자비로우신 주님)으로 묘사하고 있다. 칠십인역이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주님’으로 표현한 것은, 번역할 때 열왕기하와 이사야서가 앗수르의 침공과 관련지어 묘사한 상황을 근거로 하여 의도적으로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²²⁾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 엘리온(אֱלֹהֵינ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섬기던 하나님의 명칭(창 14:18)으로 후에 야훼 하나님과 동일시되었다.²³⁾ 이런 점에서 집회서의 히브리어 본문이 예루살렘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 명칭을 אֱלֹהֵינוּ(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 명칭에 있어서 『공동』과 『성경』은 칠십인역을 따르고 있는 반면에 NABRE는 히브리어 본문을 따르고 있다.

집회서의 경우 20a-b절은 백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9:14-19와 이사야 37:15-20에서는 히스기야가 홀로 기도한 것으로 나온다.²⁴⁾ 20b절의 כַּפַּיִם에서 כַּפַּיִם는 발음에 따라 כַּפַּיִם(손바닥)이란 뜻도 되고 כַּבֵּי(바위)라는 뜻도 된다. 성경에서 ‘바위’라는 뜻으로 쓰인 곳은 복수형으로 피난처(렘 4:29)나 거주지(욥 30:6)로 나온다. ‘손바닥’으로 나온 곳은 욥기 36:32; 시편 24:4; 91:12; 이사야 49:16; 예레미야애가 2:14; 3:41; 미가 7:3; 학개 1:11 등이다.

칠십인역은 20c절 καὶ ὁ ἅγιος ἐξ οὐρανοῦ ταχὺ ἐπήκουσεν αὐτῶν(그리고 거룩하신 분께서 하늘에서 빨리 그들을 들으시고)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은 뒤에 קוּלוֹ תפלתם(그들의 기도 소리를)이라는 글자들만 나오고 앞의 글자들은 빠져 있다. 여기서도 한국어 성경인 『공동』과 『성경』은 칠십인역의 본문을 따르고 있는 반면에 NABRE는 히브리어 본문을 따르고 있다.

22) Patrick W. Skehan and Alexander A. 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537.

23) 라이너 알베르츠, 『이스라엘종교사 I』, 강성열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68-69.

24) Patrick W. Skehan and Alexander A. 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538.

3.5. 21절

חנה אשור () ויהנם במגפה	a ἐπάταξεν τὴν παρεμβολὴν τῶν Ἀσσυρίων b καὶ ἐξέτριψεν αὐτοὺς ὁ ἄγγελος αὐτοῦ
-----------------------------	--

『공동』

- a 주님은 아시리아 군대를 내리치시고
- b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몰살시키셨다.

『성경』

- a 주님께서는 아시리아인들의 진지를 내려치시고
- b 그분의 천사가 그들을 쓸어 버렸다.

NABRE

- a God struck the camp of the Assyrians
- b and routed them with a plague.

21a절에서 히브리어 본문은 동사가 빠져 있고 חנה אשור라는 단어만 있다. חנה의 동사형 חנה는 ‘진을 치다’(encamp)라는 뜻으로 군인들이 주둔한 ‘진지’를 의미한다. 그리스어 παρεμβολή는 ‘진지’, ‘군대’, 혹은 ‘요새’ 등, 문맥에 따라 폭넓게 사용한다. 칠십인역에 나오는 동사 ἐπάταξεν는 ‘치다’, ‘공격하다’는 뜻이다.

21b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 ויהנם의 어원인 יהנם은 ‘괴멸시키다’는 뜻으로 칠십인역에 나오는 ἐξέτριψεν과 같은 뜻이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의 주어가 3인칭 남성 단수(하나님)로 되어 있고 ‘그의 천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에 칠십인역에서는 주어가 ὁ ἄγγελος αὐτοῦ(그의 천사)로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열왕기하 19:35 “이 밤에 여호와와 사자가 나와서 앓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사 37:36 참고)는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1b절의 히브리어 본문에 나오는 במגפה(전염병으로)라는 표현이 칠십인역에는 나오지 않는다. 칠십인역은 “주의 천사들이 앓수르 군대를 몰살시켰다”고 하였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염병으로 앓수르인들을 몰살시켰다”라고 한 것이 흥미롭다.²⁵⁾ 열왕기하 19:35와 이사야 37:36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במגפה라는 표

25) Ibid.

현은 구약성경에서 네 번 나온다(민 14:37; 16:49[17:14]; 25:9; 겔 24:16).

명사 מנפח는 ‘도살’, ‘역병’, ‘전염병’이란 뜻으로 동사 נָנַח에서 나온 말로 ‘치다’, ‘세계 때리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사용한 표현이기도 하다(출 8:2[7:27]; 12:13; 민 8:19 참고). 그리고 וַיִּהְיוּ בַּמִּנְפָּח(전염병으로 그들을 몰살시켰다)는 사무엘상 7:10에 나오는 וַיִּנְּפוּ וַיִּהְיוּ(그들이 혼비백산하여 패하였다)라는 표현과 비교해 볼 수 있다.

3.6. 22절

(פִּיהוּ אֵת הַטּוֹ)	a ἐποίησεν γὰρ Εἰζεκιας τὸ ἀρεστὸν κυρίῳ
וַיִּחַזַּק בְּדַרְכֵי דָוִד	b καὶ ἐνίσχυσεν ἐν ὁδοῖς Δαυὶδ
()	c τοῦ πατρὸς αὐτοῦ ἃς ἐνετείλατο Ἠσαΐας ὁ προφήτης
()	d ὁ μέγας καὶ πιστὸς ἐν ὁράσει αὐτοῦ

『공동』

- a 히스기야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였다.
- d 그리고 하느님의 교시를 충실히 전한,
- c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의 가르침을 따라
- b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굳건히 지켰다.

『성경』

- a 히스기야는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였고
- d 자기의 환시에 충실하고
- c 위대한 이사야 예언자의 명령에 따라
- b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굳건히 지켰다.

NABRE

- a For Hezekiah did what was right
- b and held fast to the paths of David,
- c As ordered by the illustrious prophet Isaiah,
- d who saw truth in visions.

『공동』과 『성경』은 22절을 우리 말 어순에 따라 히브리어 본문과 칠십인역의 문장 순서와는 다르게 배치하고 있다. 칠십인역에서는 22a절에 히스기야가 주어로 나오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빠져 있다. 그렇지만 22b절의 첫 번째 단어인 וַיִּחַזַּק(그는 강하였다)라는 동사가 וַיִּחַזַּקְיָהוּ(히스기야)라는 명칭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서 일종의 언어유희(wordplay)라고 할 수 있다.

22b절의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그는 다윗의 길에서 강했다’이다. 『공동』의 “다윗의 길을 굳건히 지켰다”와 같은 의미이다. 칠십인역은 22c절에 τοῦ πατρὸς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다. 『공동』과 『성경』은 칠십인역을 따라 ‘그의 조상’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NABRE는 히브리어 본문을 따르고 있다. 여기서 히스기야를 다윗과 연관시킨 것은 히스기야의 신실함을 다윗에 버금갈 만큼 높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벤 시라의 시대에 다윗은 이상적인 경건과 믿음의 모범이었기 때문이다.²⁶⁾

4. 실로암 비문

실로암 비문은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²⁷⁾, 모두 6줄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줄의 처음 부분은 벽에서 비문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부서져 두 글자가 정도가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글자는 הנקבה로 어원은 ‘굴을 뚫다’라는 의미의 נקב이다. הנקבה는 3인칭 단수 인칭접미어를 가진 니팔 부정사형으로 이해하여 ‘그 굴이 뚫려진 것’이라는 뜻이고, 네 번째 줄의 הנקבה는 여성형 동명사로 보고 ‘굴을 뚫는 것’으로 이해한다.²⁸⁾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성경에서는 התעל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התעלה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 안으로”(왕하 20:20) 혹은 ‘아래로 다윗 성의 서쪽으로’라는 표현과 함께 히스기야가 성 밖에 있던 기혼 샘의 물길을 성안 서쪽 아래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들었다는 것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집회서 48:17c에는 동사 הצב(뚫다)와 명사 צור(바위)가 나오는데, 실로암 비문에도 두 번씩 나온다. 그중에 הצב 동사는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줄에 הצבם이라는 분사 형태로 나온다.²⁹⁾ הצבם은 일종의 직업 명으로 일꾼(인부)을 가리킨다. 명사 צור는 세 번째 줄에 전치사 ב와 결합되어 בצור(바위에)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여섯 번째 줄에 관사와 함께 הצור(그 바위)라는 표현으로 나온다.

26) Ibid.

27) Johannes Renz, *Die Althebräischen Inschriften: Teil 1. Text und Kommentar*, HAE 1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 180.

28) Kenton L. Sparks, *Ancient Texts for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A Guide to the Background Literature*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5), 501.

29) 일부 학자들은 הצבם이 실로암 비문의 첫 번째 줄의 부서진 부분에 쓰여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실로암 비문의 네 번째 줄에 $\text{לפרת רעו גרון על [ג]רון}$ (일꾼들이 각기 동료로 곱갱이에 [곱]갱이로 마주하게 되었다)에서 גרון 은 ‘도끼’, ‘곱갱이’라는 뜻으로 바위를 부수는 연장을 말한다. גרון 은 비문의 두 번째 줄에도 나온다. 집회서 48:17은 바위를 뚫은 연장을 בנחשת (놋으로, 히브리 본문), 혹은 σιδήρω (쇠로, 칠십인역)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일꾼들이 사용하던 곱갱이가 놋이나 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로암 비문과 집회서 48:17의 용어와 표현이 서로 유사한 것을 볼 때 이들의 기록은 같은 사건, 즉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공격에 대비하여 지하 수로를 만든 일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5. 나가는 말

신명기 사가와 역대기 사가 모두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침략에 대비하여 성 밖에 있는 기혼 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집회서는 이런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히스기야가 성을 견고하게 하고 수로를 성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하나님께서 앗수르 군대를 물리치도록 하였다는 점을 칭송하고 있다. 특별히 집회서가 앗수르의 침략에 직면하여 히스기야가 홀로 기도했다고 한 성경의 기록과 달리 히스기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다고 표현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히스기야가 ‘성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가 실로암 터널이나 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다른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역대하 32:30에 ‘다윗 성 서쪽으로 해서 성안으로 끌어들이었다’고 한 표현은 실로암 터널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실로암 비문에 있는 용어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점에서 볼 때, 집회서 48:17도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공격에 대비하여 만든 수로가 실로암 터널임을 말하는 것이다.

집회서 48:17-22는 히브리어 본문과 칠십인역 사이에 용어나 표현상의 차이들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하나님 명칭이 18d절에 אל (하나님)과 20a절에 אל עליון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칠십인역에는 나오지 않는다. 21절에 앗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도 칠십인역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주어로 나오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20a절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אל עליון)이 주어로 계속 이어지면서 전염병으로 (במונפה) 물리쳤다고 나온다.

『공동』과 『성경』은 칠십인역을 번역 대본으로 삼았지만, NABRE는 칠십인역과 히브리어 본문의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 대부분 히브리어 본문을 따르고 있다. 비록 외경이 칠십인역에는 있고 정경인 히브리어 성경(MT)에는 없지만, 집회서의 경우 본래 히브리어로 쓰였고, 현재 히브리어 본문이 사본으로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동』이나 『성경』 등, 집회서가 포함된 우리말 성경을 개정하거나 혹은 새롭게 번역할 때에는 히브리어 본문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고려해야 한다.

<주제어>(Keywords)

히스기야, 예루살렘, 터널, 실로암 비문, 앓수르.

Hezekiah, Jerusalem, Tunnel, Siloam inscription, Assyria.

(투고 일자: 2020년 1월 28일, 심사 일자: 2020년 2월 21일, 게재 확정 일자: 2020년 4월 17일)

<참고문헌>(References)

-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BH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구약성서』 (한국어 서문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8.
- A. Rahlfs, ed.,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9.
- New American Bible Revised Edition*, Washington, DC: Confraternity of Christian Doctrine, Inc., 2011.
- The New American Bible, Translated from the Original Languages with Critical Use of All the Ancient Sources by Members of the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With Textual Notes on Old Testament Readings*, Paterson: St. Anthony Guild, 1970.
- 딜라드, 레이몬드 B., 『역대하』, 정일오 역, WBC 15,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0.
- 알베르츠, 라이너, 『이스라엘종교사 I』, 강성열 역, 서울: 크라스찬다이제스트, 2003.
- 이상원, “히스기야의 산당 제거(왕하 18:4)와 여로보암의 죄(왕상 12:26-32) — 히브리 성서(MT)와 우리말 번역 성서의 비교 —”, 『성경원문연구』 39 (2016), 42-61.
- 전무용,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무엇이 어떻게 개정되었는가”, 『성경원문연구』 13 (2003), 139-156.
- 천사무엘, “집회서의 이스라엘 영웅 찬양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0 (2005. 7.), 29-51.
- 홉스, T. R., 『열왕기하』, 김병하 역, WBC 13,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3.
- Beentjes, Pancratius C., *The Book of Ben Sira in Hebrew: A Text Edition of All Extant Hebrew Manuscripts and A Synopsis of All Parallel Hebrew Ben Sira Texts*, VTS 68, Leiden: Brill, 1997.
- Faust, Avraham, “A Note on Hezekiah’s Tunnel and the Siloam Inscription”, *JSOT* 90 (2000), 3-11.
- Norin, Stig, “The Age of the Siloam Inscription and Hezekiah’s Tunnel”, *Vetus Testamentum* 48:1 (1998), 37-48.
- Beentjes, Pancratius C., *The Book of Ben Sira in Hebrew: A Text Edition of All Extant Hebrew Manuscripts and A Synopsis of All Parallel Hebrew Ben Sira Texts*, VTS 68, Leiden: Brill, 1997.
- Penar, Tadeusz, *Northwest Semitic Philology and the Hebrew Fragments of Ben*

Sira,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5.

Renz, Johannes, *Die Althebräischen Inschriften: Teil 1. Text und Kommentar*, HAE 1,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

Rogerson, John and Davies, Philip R., “Was the Siloam Tunnel Built by Hezekiah?”, *Biblical Archaeologist* 59:3 (1996), 138-149.

Schechter, S. and Taylor, C., *The Wisdom of Ben Sira: Portions of the Book Ecclesiasticus from Hebrew Manuscripts in the Cairo Genizah Collection Presented to the University of Cambridge by the Edito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9.

Skehan, Patrick W. and Di Lella, Alexander A., *The Wisdom of Ben Sira: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AB 39, New York: Doubleday, 1987.

Sparks, Kenton L., *Ancient Texts for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A Guide to the Background Literature*,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5.

<Abstract>

**Study on Hezekiah's Tunnel in Ben Sira 48:17-22:
Comparison between the Hebrew Text and the LXX**

Pong Dae Im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In this paper, I will search the story of Hezekiah's tunnel in the Book of Ben Sira called Ecclesiasticus as well as in the biblical texts, comparing the Hebrew text and the Septuagint to discern differences in the translation among the Korean Common Translation, the Korean Catholic Bible, and the New American Bible Revised Edition.

Hezekiah was one of the great kings of Judah, at least from the religious viewpoint of the Deuteronomist, the Chronicler, and Ben Sira. Hezekiah bored a tunnel from the Spring of Gihon to the Pool of Siloam (2Ki 20:20; 2Ch 32:30), thus assuring Jerusalem a good supply of water when Sennacherib attacked Judah and surrounded the city of Jerusalem.

We can find this story of Hezekiah in the Book of Ben Sira 48:17-22. Ben Sira was originally written in Hebrew around the 2nd century BCE, and was later translated into Greek as one book of the Septuagint. Between 1896 and 1900, many fragments of Ben Sira in Hebrew were identified by scholars among the vast collection of materials recovered from the Cairo synagogue genizah.

Ben Sira 48:17c "and he hewed through the rocks with bronze" is evidently referring to the boring of the tunnel from the Gihon to the Pool of Siloam. This resembles the description of the Siloam inscription. The verb **חָצַב** (hew through) and the noun **צֶוֶר** (rock) both occur twice in the Siloam inscription found six meters before the exit of Hezekiah's tunnel in 1880, and it describes the dramatic meeting between the workers who have completed the tunneling.

While the Hebrew text declares 'the Most High God' (**אֱלֹהֵי יְהוָה**) in verse 20a, the LXX describes God as "the Lord, merciful". The LXX's expression is clearly an interpretive variant based on the context here and in 2 Kings. In many cases, the Korean Common Translation and the Korean Catholic Bible followed the LXX in their translation, whereas the New American Bible revised its translation based on the Hebrew text, which is respected as the original

language.

Even though the LXX is more familiar to us since the Apocrypha is not included in the Hebrew Bible, Ben Sira was originally written in Hebrew, and fortunately, we now have the Hebrew text as its manuscript. We therefore need to take into serious account the Hebrew text as well when we revise or translate Ben Sira.